

建築環境의 保護와 建築家の 役割

李 在 玉

1. 序論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人口問題와 汚染問題가 日常生活의 問題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環境에 對한 새로운 認識과 管理의 重要性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勿論 그 以前에도 生物學者나 環境學者들 가운데는 開發이란 明分으로 서둘러온 人爲적인 조치가 결국은 人間 環境의 파괴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研究 및 우려를 해온바 있었다.

우리나라도 都市의 급격한 人口集中으로 都市주변의 自然環境이 날로 파괴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工業團地化, 아파트團地化내지는 住居地化하고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環境의 파괴가 한번 일어나게되면 이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란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릴뿐아니라 本來의 生態的機能을 完全히 되찾기는 거의 不可能하다는 데에 環境問題의 심각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것이다.

일찌기 美國테네시주의 Copper Hill Basin의 울창하고 울퉁하던 森林이 銅製鍊所에서 뽑어내는 亞황산가스로 말미암아 전멸이된 사실이 있는데 그 황폐한 山野地도 수많은 사람들의 科學知識과 막대한 費用을 投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本來의 生態的 機能을 되찾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環境이라는 것은 存在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建築環境은 人間の 個人的 또는 集團의 生活를 담는 部分을 建築環境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大部分의 環境파괴의 問題는 주로 이 建築環境파괴의 問題가 발단이 되고있다.

人間을 中心으로 하는 環境, 특히 모든 環境파괴의 발단이 되고 있는 建築環境을 어떻게 建築家들이 管理하고 保護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는 建築環境의 有限성과 구속성 의 特性을 감안할때 建築環境管理의 가장 核心的인 問題일 것이다.

2. 建築環境의 特性

人間은 하나의 生物체로서의 基本的인 生存을 가장 重要하게 認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唯一한 目的은 아니며 이것이 다른 生物체와 현저하게 구별되는 特殊性 이다.

人間은 合理的인 知的存在이기에 自存을 維持하고 個性을 發展시키며 住居를 마련하여 生活의 질을 개선하고 그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美的인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주위환경을 要望하게 되는데 여기에 人間の 住居와 活動 및 위락을 위한 建築環境의 重要性이 있는 것이다.

人間과 建築環境의 關係에는 실제에있어서 人間이 人間の 感官을 통하여 발생되는 外的인 經驗의 關係로만 限定 되어지지 않는 훨씬 複雜한 關係가 가로놓여 있다.

우선 建築環境의 特性의 하나는 建築環境의 日常성이 다. 이 建築環境의 日常성이 建築環境의 構造를 單調롭고 획일적으로 유도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다. 建築家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生活의 영역에서 조우하게 되는 모든 복잡한 環境을 複雜하게 또 複合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화하여 받아들이며 相互關聯性을 무시하는 日常的 思考가 現在의 不便한 建築環境을 만들어낸 主된 源因이라고 Alexander Chirstopher는 말하고 있다.

建築家は 모든 사람의 日常的 生活영역을 다루는 사람 이므로 자기가 속하고 있는 建築環境에 對해 깊은 洞察力 을 지니고 또 建築行爲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建築 環境의 物理的 要素들이 日常的으로 反復되는 것이 大部分이기때문에 環境에 對한 접근에서 얻어지는 經驗과 認識이 鈍化되거나 潛在意識속으로 파묻히게 되어, 建築家의 洞察力 즉 建築家가 建築行爲에 다양하게 表現하여야 하는 思考의 Pattern을 흐리게하는 特性이 있다.

두번째로 건축환경의 特性의 하나는 生態的인 特性이

다.

建築環境은 極히 制限되어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이 制限되어있는 建築環境을 管理하는데는 우선 生態의인 特性을 考慮하여야 한다. 人間도 環境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生物의 경우와 同一하다.

따라서 人間에게도 적응의 限界가 있는 것이며 이 限界를 넘게되면 生態界의 構造變化가 必然的으로 일어나고 그렇게되면 유전적으로 形質의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生物만이 生存하게 될 것이므로 建築環境은 經濟的인 能率高場의 測面에서만 다루지 말고 生態界의 均衡과 調和維持의 立場도 함께 考慮해야 한다. 物量的인 經濟的 發展에만 主眼을 두고 開發計劃을 樹立하고 造形系를 構築하며 制度系를 形成하게 되면 生態系가 가진 有用資源의 枯渴과 均衡秩序의 攪亂은 勿論 人間社會의 調和性과 健全性의 喪失을 不可避하게 招來하게 된다.

綜合的 生態系의 健全한 維持와 管理는 建築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그만큼 強化하게 되며 만일 現存하는 生態系의 多樣性의 維持를 考慮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建築物의 生産의 極大化에만 注力하여 建築環境이 計劃되어져 간다면 이러한 生態系의 健全한 保全은 決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建築環境에서 生態系의 均衡이 파괴되면 建築行爲의 鈍化는 말할것도 없고 즉시 人類의 構造는 歪曲되게 形成되어질 것이다.

세번째로 建築環境의 特性의 하나는 구속적 特性이다. 大部分의 建築環境은 生活의 Pattern을 결정짓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환경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신발의 크기에 발을 맞춰가는 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주어진 建築環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감수성을 주어진 환경에 맞게 변질시켜왔기 때문에 生活의 Pattern이 항상 고통을 강요받아오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認識하지도 못하고 구속을 당해왔던 것이다.

1943년 10월에 英國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하원에서 행한 건축환경과 인간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결국에가서는 우리가 만든 건물이 우리를 다시 만든다”라고 말하며 建築環境의 구속성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建築環境의 구속적 특성을 단적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英國의 하원의사당은 독일군의 폭격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리하여 下院議事堂의 再建問題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보다 空間的으로 여유있는 議事堂이나 세계의 많은 議事堂처럼 편안한 의자와 實用的인 책상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議事堂같은 것을 처칠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根本的으로 처칠이 願하였던 것은 여당과 야당의 相反되는 역할을 強調하여 마주보도록 의석을 배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정당구조를 表現했던 옛 議事堂의 複寫였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議事堂에는 議員數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배치하여 참석률이 나쁜 회

기에 발언자가 텅빈 의석을 향해 발언하게 됨으로써 사기를 꺾이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建築物에 처한 배려는 建築家들이, 어떻게 建築環境에 처한 各各의 特性을 把握하여, 建築環境의 要素들 즉 建物이건, 都市이건, 광장이건간에 모든 要素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家들은 특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매일매일의 물질문명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같은 결정들은, 설령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인간의 복지에 장구한 위협이 되지않는다 할지라도 신중히 다루어야 할 즉각적인 道德的 美的內容을 가지고 있다.

생존이 建築環境을 保護하고 保全하려는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 人間은 때로 그들의 평균수명이 建築環境의 파괴로 인해 침식당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피폐된 교외로 둘러싸인 단조롭고 혼돈된 도시에서 살고있는 거주자들은 결코 물질적인 불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高貴한 精神的인 特性의 결여에 의해서 스스로 벌받고 있음을 建築環境을 다루는 사람들은 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다.

3. 建築環境保護의 必要性

人間의 生活은 歷史의 進전에 따라 부단히 변하게 되고 따라서 人間의 生活을 담은 建築環境도 부단히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변질이 어느정도까지가 人間生活의 限界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物理的인 수치를 예시할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生活이 변질됨에 따라 가치와 規範도 따라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間의 建築環境에 처한 適應態의 倫理的인 妥當性의 限界는 人間自本가 가지고 있는 生態學的 特性을 감안하여 어느정도 개략적인 유추는 가능할것이다. 그리고 建築環境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建築環境에 대한 人間的 適應態의 倫理的 妥當性의 限界內에 恒常 있을 수 있도록 保護되어져야 할 것이다.

人間이 建築環境에 대한 認識을 利用으로부터 管理로 消耗로부터 保存으로, 파괴로부터 保護로 變換되어지게 된 것은 人間이 이들 環境을 單純한 效用拔菜의 對象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과 建築環境은 결코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는 事實 및 人間의 幸福은 物質的 豊요에서만 達成될 수 없다는 事實等을 感知했기 때문이다.

人間이 이와같은 環境에 조우하게 되는 과정을 Gutkin은 4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단계는 人間이 주변환경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을 받게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人間에게 建築環境이란 오로지 예기치 못했던 위협을 가하는 要素로 밖에 認識하지 않았으며 그 랐기에 人間은 이 위협적인 環境에 對處하는데 급급하였으며 群落을 하면서 수렴을 주로 하는 생활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험준한 산과 야수등을 오직 수렵생활의 방해적인 要素로 생각했던 단계를 벗어나는 단계이다.

이 두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建築環境의 支配를 꿈꾸고 利用을 計劃하기 시작한다. 山水가 좋고 氣候가 溫候하면 主食인 곡식의 生産量이 增加한다는 事實을 認識하고 또 森林이 울창하면 기름진 땅이 된다는 事實을 認識했기 때문에 建築環境의 선택에 눈을 들었던 단계이다.

Gutkind는 세번째 단계를 우리가 살고있는 現在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建築環境은 人間의 生活學의 本能을 만족시키는데만 국한되지않고 보다 人間的인 生活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장 基本的이고 重要한 要素로서 認識되게 되었던 것이다. 産業의 급진적인 發達로 오염과 환경의 파괴가 심화되는 단계이기때문에 마침내 人間의 基本的인 生存權마저도 위협받게때문에 이같은 環境保護와 保存의 問題가 크게 대두되는 단계이다. 네번째의 단계는 未來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人間이 未來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들의 建築環境과 조우하고 改善해야할 것인가의 단계이다. 人間이 未來의 단계에서 生活의 質을 向上시키고 環境에 대해서도 量的인 면보다도 質的으로 改善하기 위한 建築環境의 保護와 保全의 必要性은 未來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基本生存權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데 根據를 두고 있는것이다.

4. 建築家の 建築環境에 對한 認識

建築家가 建物을 設計하는 것은 우리의 建築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計劃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建築環境 그 自体를 어느정도 파괴하기 위한 計劃도 되는 것이다. 여기에 建築家가 建築環境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해야할 소가 있는 것이다.

비록 建築環境에 對한 開發計劃이나 建築物의 計劃 등이 人間과 그를 담고있는 建築環境間의 이율배반적 關係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人間의 開發에 對한 意慾과 努力은 天賦의 屬性이다.

人間個個의 立場에서는 不便을 除去하고 享樂을 推進시키기 위한 本性에서 現在의 狀態로부터 發展하고자 하며, 人間集團으로 形成된 社會에서는 優位를 占하고자 하는 競爭의 本性에서 開發을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開發을 위한 人間의 즐거워 활동은 막을 수 없고 또한 必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人間에 依한 開發行為는 自然히 人間을 圍繞하고 있는 環境에 對하여 크고 작은 여러가지 形態의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建築家는 建築環境의 造成에 있어서 建築環境을 利用의 對象인 同時에 具顯의 目的으로 認識하여야한다.

建築物의 計劃은 기존의 環境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바람직한 環境을 조성함으로써 人間生活을 보다 便益스럽게 하고자하는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인 만큼 人間의 指向하는

바 복지가 이와같은 計劃의 最終目的이라면 그러한 복지를 實現시키는데 必要한 새로운 건축환경은 建築物의 計劃의 中間目的이 되며 現在의 建築環境은 建築物의 計劃을 위한 여건의 성격을 띠게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人間 특히 建築家가 建築計劃이란 行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建築計劃의 自体가 人間自身에 의한 人間環境의 合目的的인 形成이라는 認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建築家에게 建築環境은 獨立的인 個別體로 認識되어져서는 안되고 線合的인 關聯體로 認識되어져야 한다.

建築家가 建築環境을 관련된 부분에 局限하여 個別的으로 다루어 建築計劃을 해왔기때문에 最近의 人爲的인 都市空間이 생태적으로 적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惡化되고 있다고 Alexander Christopher는 評하고 있다. 勿論 建築環境을 관련된 部分에 局限하여 個別的으로 認識하여 建築計劃을 하는 경우에도 當面한 하나 혹은 몇개의 問題는 해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結果는 또다시 새로운 問題를 야기시키게 되기때문에 綜合的인 關聯體로 認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이와같은 綜合的인 접근방법은 建築計劃의 過程에서 전문화된 각 분야의 지식과 意見을 效果的으로 취합하는 建築家의 많은 努力을 要求하게 될것이다.

끝으로 建築家는 建築計劃의 主体인 建築家와 客体인 建築環境을 体系化하는 접근방법으로 建築環境을 다루고 認識해야 된다. 体系的인 接近方法은 設定된 한 体系의 内外에 있는 諸要素와 이들 要素間의 關係와 作動 및 時間의 흐름에 따른 이들 要素와 要素間 關係의 變化를 考慮의 對象으로 하여 最善한 行위를 결정하는 方法이므로 이것은 人間과 建築環境을 묶어 새로운 建築環境을 造成하는데 目的을 둔 建築計劃에서는 有用하면서도 當爲스러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体系的인 接近法에 의한 建築環境의 認識은 体系를 그의 機能的인 效率化라는 立場에서 불배 情報의 移動과 決定의 行動化와 体系間의 秩序 및 建築環境에의 受客의 자세등에 관한 合理的인 原理를 제시해주는 Cybernetics와 함께 考慮되어진다면 보다 最善한 建築計劃에 依한 建築行為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建築家の 建築環境保護責任

人類의 歷史와 興亡을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設明하는 世紀의 史家 「토인비」교수는 앞으로 人類의 希望성채는 인간이 얼마나 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을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環境을 保護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人口의 증가, 産業의 지속적인 成長, 環境파괴적 기술의 개발, GNP 成長과 生活樣式의 變化와 産業과 人口의 都市集中에 대한 諸測面에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들 保存하고 保護하기 위한 立法도 마련되고 있지만 快適하지 못한 建築環境에 대한 責任은 建築環境內의 모든 人間들이 責任을 共同으로 져야한다.

그중에서도 建築環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建築計劃을 통하여 建築環境을 造成하는 建築家에게 우선 일차적인 責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建築家が 建物の 計劃을 하고 設計를 하여 建築行爲를 하는것이 파괴에 의한 재창조의 意味일지라도 일단은 建築環境과 파괴자로서의 責任을 恒常 통감하는 자세로 建築行爲에 임하여야 하며 파괴시킨 建築環境에 대해 대체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조성에 더욱 努力하여야 한다. 建築家の 建築行爲가 모름지기 기존의 建築環境 즉 現在の 建築環境으로부터 目的하는 바 새로운 建築環境을 造成하는 活動이기 때문에, 人間이 태고부터 전승해 내려오고 있는 이 훌륭한 建築環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建築環境造成計劃의 種類와 目的에 따라 해당지워질 것이지만 또 당시의 그 社會가 가진 目的意識과 價値體系 및 기술정도에 의해서도 상이하게 결정지어질 문제이지만 주어져있는 建築環境의 保護에 대한 責任은 그 環境에서 生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또 그에 우선하여 건축가에게 가장 根本的인 責任이 있다는 것은 建築環境의 有限性和 구속성을 가지고있는 特殊한 環境이기 때문인 것이다.

6. 結 論

人間이 닦쳐오는 建築環境의 위기를 극복하고 建築環境을 合理的으로 管理하는데는 여러가지 多樣한 科學的인 方法을 動員할 수 있을 것이나 이들 科學的인 方法과 技術의 使用을 통해서 생태학적으로 賢明한 目標를 設定하여 合理的인 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착실하게 施行해가는 접근방법이 가장 타당성과 현실성이 큰 方法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 方法에서의 賢明한 目標란, 생태학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建築環境에 있어서의 人間の 活動과 生活이 恒常 人間的인 또 生態學的인 倫理的 妥當性의 限界內에 確保될 수 있도록 計劃 및 수행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현되는 미래 社會의 창조된 文化를 뜻하는 것이다.

宅地의 造成과 建物이 차지하게되는 파괴되는 建築環境이 生態系의 均衡過程과 調和를 이루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것은 바로 發展의 一方向的 論理를 平衡的인

調和의 論理로 유도하는 것이다.

建築環境의 保護와 保全을 위해서는 生態學的 變化의 限界를 考慮하여 住居의 限度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下水나 폐수등과 같은 폐기물등에 대해서도 그 淨化능력에 따라 배출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따라서 建築家は 이제 各方向에 대하여 綜合的인 知識을 습득하여 活用할 수 있어야만 建築事業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의 모든 建築行爲가 우리 스스로 建築環境과 파괴의 責任의 一部를 면할 수 없다는 使命感을 갖고 새로운 建築環境造成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建築環境속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組織의 形態와 原理를 理解하고 그를 利用한 計劃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력과 使命感을 同時에 견지해야 한다.

人類는 人類에게 주어진 建築環境을 開發하고 利用하며 人間生活의 터전을 확대하고 大都市를 建設해오면서 오늘의 번영과 물질문명을 이룩하진 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環境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구속받게 된것은 바로 우리의 責任이며 惡化를 중지시키고 改善과 管理를 할 사람도 우리밖에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세대에 들어서서 人間은 최초로 대기권 밖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게될 수 있었다. 모든 人類의 故響이며 단하나밖에 없는 지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희박하고 重要한 大氣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의 힘을 나누고 우리들을 떼어놓기 위한 어떠한 인위적 경계도 없는 조그마한 하나의 구체에 불과한 그 지구안의 일부밖에 되지않는 우리의 建築環境은 그 구체내부의 한 평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人類는 지구의 탐험과 개발을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여왔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회복 즉 우리의 生活環境의 회복을 위하여 그와같은 努力을 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人類의 科學과 技術의 진보는 이제 지구를 벗어나 月世界를 여행할 수 있을만큼 成長하였다. 그러나 이미 불모의 月世界를 一見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오염으로 찌들게한 우리의 建築環境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認識하게 되었던 것이다.

国立建設研究所建築部 勤務